

제315회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11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o 위원장(김진표) 인사	1
2. 간사 선임의 건	2
o 간사(박민식·김태년) 인사	2

(11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위원** 박민식 위원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 3선 의원이시고 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신 바 있는 정 말 훌륭한 인품과 또 경륜을 갖추고 계신 김진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우** 방금 김진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성곤 위원** 의견 있습니다.

3선 말고 4선도 있는데 3선을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시 인격과 경륜으로 보면 김진표 위원님이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진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표 위원님이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제 소임을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표) 인사**

(11시37분)

○위원장 김진표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에 따라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서 정치 개혁과 국회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어진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합리적인 쇄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수석전문위원과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권영진 입법심의관입니다.

김병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 외에도 다수의 입법조사관과 법제관 등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 통지와 관련된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미리 각 의원실에 보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간사 선임의 건

(11시39분)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민식 위원을, 민주통합당에서는 김태년 위원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민식·김태년) 인사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선임된 간사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간사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인 그 열망을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태년 간사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우리 국회와 정당이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벗이고 또 친근한 이웃이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임무를 우리 위원회가 맡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 책무가 무겁고도 중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특위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사하는 순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치 쇄신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격을 보면 지난해에 운영되었던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쇄신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함께 앞으로 우리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다룰 수 있는 대상 과제로 각 교섭단체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함께 자료로 미리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면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회의 운영에 또 간사님들과 의논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계시는 김상훈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측에 계시는 김관영 위원님 순으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 여러분들 또 유권자들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쇄신의 목소리 또 그런 여망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듣고 목격했습니다. 이 정치쇄신평의회가 그런 많은 목소리들을 녹여 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자신은 초선이고 또 정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경륜 높으신 선배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쇄신평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쇄신평의 과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또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재원 위원**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장 김진표** 시작하셨으니까 두 분씩 하시지요. 두 분씩 두 분씩 하시면 됩니다.

○**김재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쇄신평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작년에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난번에 국회쇄신평위 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국회에 좀 오래 있었던 만큼 밥값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박민식 위원님, 생략하시고.

서용교 위원님.

○**서용교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을 서용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정치 선진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지역 김영주 위원입니다.

새누리당에도 김영주 의원이 계셔 갖고 제가 한동안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웃음소리)

사실 우리가 너무 국민들 입에, 국민들 귀에, 국민들 눈에만 맞는 공약만 해 놓고 국회에서 쇄신평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또 우리 정치쇄신평에 들어오지 않은 동료 위원들이 어떤 방안을 원하는지 함께 듣고 또 쇄신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유승우 위원님.

○**유승우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 새누리당 유승우 위원입니다. 이천은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오시면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3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초선이고 아무 경험도 없지만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문제도 좀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아까 인사하셨지요?

○**김태년 위원** 예.

○**위원장 김진표** 문병호 위원님.

○**문병호 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정치쇄신평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치 시스템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관료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 한 일이 뭐냐' 그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번 19대 국회가 할 일이 그것이다…… 가장 높게는 개헌 문제를 저는 거국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뭐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국회, 예결위 상설화라든가 소위 활성화라든가 또 그런 국회의 권능을 높이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이, 예·결산 심사라는 게 거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법안 심사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빨리 제도적으로 타파를 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정치쇄신평위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서 뭔가 국회사에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저는 서울의 노원갑 이노근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지금 3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치권을 외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출범할 때마다 정치 쇄신이 단골 메뉴로 들어옵니다. 여기 존경하는 3선·4선 선배님들 계십니다마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매년 메뉴로 올라오면서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는 서로 간의 당리당략이 아니겠느냐…… 이번이야말로 대통령선거 때 여야 공통적으로 많이 제기했던 쇄신안들이 올라와서 결판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기대만, 의욕만 앞서 가지고 너무 부풀려 가지고 접근하면 실현성이 없고 반대로 또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서, 면피만 하기 위해서 너무 과소하게 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정도로 가야 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 또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시각에서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입법권이 여기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서 여야가 또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됐던 국회쇄신평특위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어서 정치쇄신평특위에서 일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좀 눈칫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정치의 마지막 과제로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일에 정말 모든 걸 걸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저는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은 시기에 이 정치쇄신평특위에 있게 돼서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느낌도 갖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쇄신을 제일 많이 주장하면서 쇄신이 제일 안 되는 곳이 바로 정치, 국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진전 있는 그런 특위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빨리 입법화가 좀 되도록 하고요. 좀 더 과감하고 좀 쇄신적인 그런 위원회 운영과 또 좋은 쇄신 방안들이 나와서 뭔가 좀 결실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쇄신평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되고 또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쇄신평특위는 꼭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게 제도적인 장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님 또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황주홍 위원** 전남 장흥·강진·영암 지역 황주홍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최후의 미쇄신평 또는 저쇄신평 분야랄까, 영역이 정치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 선배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보니까 네 분이 같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지난번에 한 번 간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안전을 가지고 지난번에 출범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런 대로 좀 했습시다라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건은 손도 못 대고 사실 지난번 임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새누리당 들어오신 분들께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황주홍 선배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원혜영 위원님도 지난번에 상당히 의욕 있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진해서 처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의 경험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의 어떤 국민적 새로운 시각으로 좀 크게 양보해서 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 7년 만에 다시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정치 쇄신평의 고민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 쇄신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문제 이전에 대표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가 과연 우리 국민들 구석구석 다 대변하

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회 운영, 그중에서 우리 국회 정치쇄신평위 운영부터 좀 쇄신평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보고사항에 보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위원님들하고요 심상정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당이 아니고 진보정의당 소속입니다. 교섭단체 제도를 국회 운영의 편의상 채택하고 있고 저도 존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교섭단체 제도가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과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제가 17대 국회 때도 제안을 해서 시정이 됐던 것인데 또다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 자료에도 정치 쇄신평 의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 공약만 나와 있어요. 저희 진보정의당도 정치 쇄신평과 관련하여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쇄신평을 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바로 정치 쇄신평을 위해서 저희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자갈길을 걷고 있다는 점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제만 다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하여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들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주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오늘 우리 정치쇄신평위에 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18인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첫 회의에. 이렇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특위의 생명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참여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들이 국회 각 위원회의 관행에 따라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3항 이 조항을

아마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정치 쇄신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쇄신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 쇄신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 많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우선 간사님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 또 방금 우리 심상정 위원님 진보정의당에서 발표한 정치쇄신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추려서 공통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나누어 드리고 다음 회의 때에는 그런 과제들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구성이라든가 또 토의 순서, 심의 순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대개 운영되는 걸 보면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과제를 대개 협의해 가지고 과제별로 공청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에서 답을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공청회가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흐르는 수가 있고, 사실은 소위를 자주 열어서 거기서 충실한 토론을 해야 답이 나와서 소위에 늘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소수 인원 범위 내에서 매번 소위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위를 운영해야 좀 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자문위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그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늘 가능하면 미리미리 회의 자료를 보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 미리 좀 이걸 읽어 보시고 나와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관영	김상훈	김성곤	김영주
김재원	김진표	김태년	문병호
박민식	서용교	심상정	유승우
원혜영	이노근	이명수	이채익
함진규	황주홍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임재주
입법심의관	권영진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상훈 김재원 박민식 서용교 유승우 이노근 이명수 이채익 함진규	새누리당	2013. 4. 8
김관영 김성곤 김영주 김진표 김태년 문병호 원혜영 황주홍	민주통합당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